

민주 대선주자 줄줄이 호남행...경선 승부처 텃밭표심 잡기

최문순 오늘 1박 2일 일정

정세균·이광재 3일 광주행

이재명 내일 전남도청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일제히 여론의 텃밭인 광주와 전남을 잇따라 방문한다. 이는 호남 민심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부를 결정 짓는 주요 가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 대선 후보들의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광주를 찾아 종교계와 경제계, 시민단체, 학생, 체육계, 청년 등 각계각층을 만나며 텃밭 민심을 쟁겼다. 전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전 대표는 오후에 광주로 내려와 1박을 한 뒤 이날 하룻동안 12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기독교계 인사,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시민사회단체연합회, 시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 호남대 e스포츠 학과 학생들을 잇따라 만났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첫날은 이용섭 광주시장을 면담한 뒤 지역 언론사 인터뷰, 중소기업 중앙회 초청 강연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날은 국립 5

·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 뒤 전남 목포로 내려와 하룻밤을 보낼 예정이다. 2일 오전에는 화상 플랫폼 줌을 통해 1시간가량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경기 상생협력 회의'에 참석한다. 이 지사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회의를 마친 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공동 대응, 전남산(産) 친환경농산물의 경기지역 학교급식 확대 등을 담은 공동 합의문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인근에 자리한 민주당 전남도당을 찾아 전남 지역 선출직 공직자와 간담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호남 공략에 나선다.

예비경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3일 함께 광주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선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당원들과 청년들을 만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텃밭 민심에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단일화 선언 이후 처음으로 여론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두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낮은 지지율 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8일 오후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학생들과 e스포츠 경기 체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포교에서 호남대학교 e스포츠팀들과 함께 e스포츠 경기를 체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재명, 나홀로 유튜브 대권 출정식

오늘 대선출마 영상 선언문

윤석열 세몰이와 대비 효과

진영논리 떠나 성장·공정 키워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30일 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공식 대권행보에 나섰다. 대선 슬로건은 물론 출마선언 형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치 철학인 '실용'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출마선언에서 그동안 강조한 '공정' 가치뿐 아니라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성장'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중도층 공략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1일 오전 7시 30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사전 녹화한 영상 선언문을 공개한다. 야권의 대권 라이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조적인 방식이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지지자들이 대거 운집한 가운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지사는 전통적 방식의 세몰이 출정식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선언을 택한 셈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자신이 돌보이기 위해 세를 과시하는 정치가, 국민과 나라의 안전을 고민하는 정치가, 두 주자의 출발점부터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여론내 1위 주자로서 경선 후 원팀 기조를 밝힌, 낮은 자세를 강조하는 차원도 깔려 있어 보인다.

대선 슬로건은 '이재명은 합니다'로 가닥을 잡

고, 수식어를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장 때부터 사용했던 슬로건으로, 성남시장·경기지사로 재입하며 보여준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실행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출마선언에서 대전환 시기 대한민국의 위기 요소를 불공정, 양극화, 저성장으로 진단하고 새 해법으로 성장의 회복과 공정성 강화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 실용을 중시하는 정치적 철학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는 합리적 면모를 부각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는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비서실장인 박흥근 의원은 지지자와 만나 "새로운 질 좋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하지 않겠나"라며 "성장의 문제가 보수의 전유물처럼 분류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열린캠프'라고 이름 붙인 경선 캠프도 공식 가동된다. 박 의원은 "개방적, 포용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플랫폼 캠프"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정책이든 가능한 캠프"라고 설명했다.

캠프 인선은 ▲총괄 조정석 ▲비서실장 박흥근 ▲비서실 부실장 천준호 정진상 ▲수행실장 김남국 ▲상황실장 김영진 ▲수석대변인 박찬대, 대변인 박성준 홍정민 의원으로 정해졌다. 정책 윤후덕 ▲전략 민형배 ▲홍보 박상혁 ▲미디어·방송 정필모 ▲국민소통 운영팀·유정주·차승재 ▲여성문정복 ▲청년 전용기 ▲장애인 최혜영 ▲노동이수진 ▲민생 이동주 ▲자치분권 이해석 ▲조직 김윤덕 ▲징비안민석 김병욱 의원 등 부분별 담당도 배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국가 최고 지도자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광주 찾은 이낙연

“뜻 같이 하는 사람 연대는 당연

경선 역동성 높이는 데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국가 최고 지도자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전날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직격을 날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지지자와 만나 “지도자는 여러 분야 경험을 갖추고 오랜 세월 축적해 가면서 만들어진다”면서 “될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보여주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반(反) 이재명 연대에 대한 입장과 관련,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연대를 만든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지 민주당부의 계승발전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연대하는 것이 당연한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저도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연대하는 것이 경선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지를 정체와 관련해서는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경선 가상 대결을 전제로 제가 처음으로 높

게 나온 게 있다. 그 뜻은 국민들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럴수록 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며 “호남 민심 또한 끊임없이 조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호남 공약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공약을 준비 중”이라며 “균형발전과 호남에 관한 것들로, 기본적으로 에너지경제 공동체, 환경을 재생에너지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를 하면서 5·18 3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한전공대 특별법 등을 추진했고, 4·3특별법, 여성특별법도 처리했다”면서 “지금도 광주와 전남에 많은 과제가 있고, 대한민국 과제도 많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은 저다”면서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대선주자 9명 한자리에 모인다 오늘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프레스테이 행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1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테이' 행사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 대선 출사표를 던진 9명의 후보자가 모두 참석한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도 각각 인사말을 한 뒤 후보자들은 공명선거 실천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진행한다.

후보자들은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기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취재진과 만나 약 100여분간 공동 회견을 한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후보자들과 함께 하는 첫 공식 행사"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